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14호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발행인 김종덕 /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 편집장 김희지

hufs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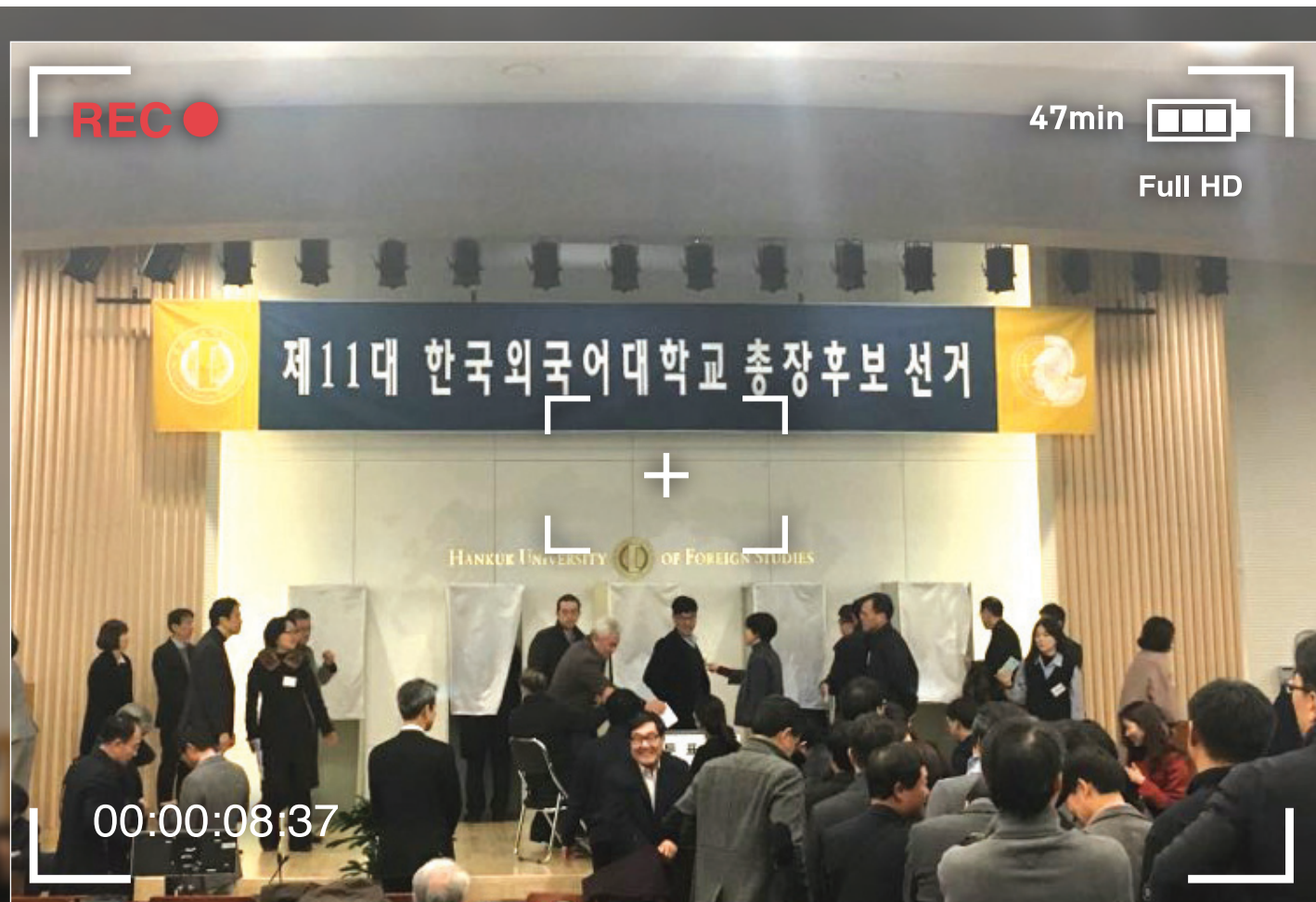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3면
우리학교 공 · 자대, 현주소를 말하다

[기획] 》 4면
중앙밴드동아리 F.A 성추행 사건

[기획] 》 6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

[사회] 》 9면
평창동계올림픽, 그 기대와 우려



총장후보선거 1차 투표 결과

1위	기호6번 김인철	29.0% 124표
2위	기호2번 유기환	13.8% 59표
3위	기호1번 박정운	13.1% 56표
4위	기호7번 정경원	11.7% 50표

지난 17일 우리학교 제 11대 총장 후보 선거 1차 투표가 진행됐다. 8명의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은 후 바로 투표가 이뤄졌다. 제1차 투표에선 기호 6번 김인철 후보가 124표를 득표해 29%의 득표율로 득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기호 2번 유기환 후보가 13.8%로 득표 2위에, 기호 1번 박정운 후보가 13.1%로 득표 3위에 올랐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는 없어 오는 24일 제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 · 사진 서효상 기자 95hssang@hufs.ac.kr

첫 학생 대상 모의투표... 민주적 총장 선출 위한 첫걸음 내딛어

제11대 총장선거 학생모의투표 결과

1) 투표 기간 : 11.10 (금) ~ 11.16 (목)
2) 재적인원 9031 명
3) 총 투표인원 1534 명
4) 결과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	박정운	225	14.9%
2	유기환	472	31.3%
3	유태영	380	25.2%
4	박용구	85	5.6%
5	소병국	87	5.8%
6	김인철	44	2.9%
7	정경원	174	11.5%
8	이현환	25	1.7%
무효		16	1.1%
계		1508	100%
오차		26	1.7%

◀ 제11대 총장 선거 학생 모의투표 결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우리학교 제11대 총장 후보에 대해 학생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학교 캠퍼스 내 단위별 기표소엔 총장 후보별 공약이 게시됐다. 총 1534명의 학우들이 이에 참여해 우리학교 차기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했다. 우리학교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총장 선거 제1차 투표 현장 곳곳에 학생 모의투표 결과를 게시했다. 이는 실제 투표권을 갖는 교수에게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우리학교 제11대 총장 선거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17일 제1차 투표를 시작으로 두 번의 초청토론회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서효상 기자 95hssang@hufs.ac.kr

'HUFS 인문학 콘서트' 에 강의 들으러 가자

지난 20일 우리학교 코어사업단이 양 캠퍼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지평' 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인문학의 명사들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내학과 또는 연구소들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그리고 학생들의 축하공연 및 연극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명사 강연은 서울캠퍼스에서 12개, 글로벌캠퍼스에서 7개 진행된다.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강연은 △외대에서 세계한국 꿈꾸기△대학 인문학 방향을 묻다△Poetry Slam : 다른 언어로 부딪히기△우리가 읽는 노벨문학상 : 가즈오 이시구로 등이 있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분단문학과 DMZ

인문학△중국인 눈에 비친 한국 인문학△인문학에서 찾는 관광 산업미래 △용인과 한국학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HUFS 로고가 박힌 제작 파우치를 증정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95ellen3147@hufs.ac.kr

2018학년도 전기
KFL대학원 모집요강

1.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7.10.2.(화) ~ 10.16.(월)	2017.11.27.(월) ~ 12.11.(월)
고사장 발표	10.18.(수) 15:00	12.13.(수) 15:00
면접전형	10. 21(토) 10:00	12. 16(토) 10:00
합격자 발표	11.16.(목) 14:00	12.28.(목)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1.20.(월) ~ 11.24.(금)	12.29.(금) ~ 2018.01.05.(금)

2. 모집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지원자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해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과목학점 및 필수시간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홈페이지 링크 참조)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박명석 전 영어과 교수, '벌집소방관'에 기부의사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의해 성사되지는 못해"

▲박명석 교수

박명석(영어 · 영어 57) 전 영어과 교수가 '벌집 소방관'에 500만원을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벌집소방관은 지난해 8월 전남 화순소방서 소방관 윤(48)씨와 서(48)씨를 말한다. 두 소방관은 한 농장에서 장수말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실수로 나무와 풀밭 1000m² 를 태웠다. 농장주는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두 소방관은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 500만 원을 마련했다. 화순소방서 동료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박명석 전 교수는 이에 10월 20일,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가슴이 아프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교수의 기부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다. 청탁금지법 8조(기부나 후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교수는 "법에 의해 후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거액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박 전 교수는 현재 ㈜직석실업 회장이며 (사)아름다운 공동체 이사장으로 우리학교에도 많은 기부금을 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난민촌으로 떠난 대학생 셋, 동화책을 만들다

대학생 셋이 모여 그리스의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바로 우리학교 김준형(통번역 · 아랍어 13), 김유한(통번역 · 아랍어 14), 주기환(인문 · 철학 11)씨다. 이들은 '이슬람 사상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만나 평소 관심 있던 난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고민 끝에 이들은 직접 난민촌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로 결심했고 이후 '난쏘공'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난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의 줄임말인 '난쏘공'은 난민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알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크게 봉사와 책 만들기라는 두 가지 활동을 한다. 한국에서 가져간 구호품을 현지 난민들에게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난민동화책을 제작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난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 6월,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리스로 떠났다. 약 한 달간의 시간동안 이들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배식과 청소 봉사 등을 하며 자연스레 난민의 실상을 파악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난민 어린이들에게 직접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해 더욱 풍성하게 동화책의 내용을 채워나갔다.

현장 조사와 난민 봉사활동을 통해 '난쏘공'은 지난 9월 「9월 2일」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출간했다. 책 제목인 9월 2일은 2015년,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가 해안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9월 2일」이라는 동화책은 한국 아동과 난민 아동의 생일날의 일상을 대비해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난민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평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의 것들에 감사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난쏘공' 세 청년은 올해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을 꼽는다. 또한 세부적 목표로 △1년에 3권씩 난민 동화책을 제작△난민 디자인 상품을 판매△난민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등 난민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꿈꾼다.

서효상 기자 95hssang@hufs.ac.kr

글로벌캠퍼스 '찾아가는 진로 취업 상담 서비스' 성황리 개최

▲찾아가는 진로 취업 상담 서비스 진행 모습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진로 취업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진로 취업 상담 서비스'는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본관△자연과학관△인문경상관△공학관의 각 로비에서 진행됐다. 총 500여명의 학생들이 상담에 참여해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진로 및 취업에 관한 1:1 상담 및 그룹상담도 이뤄졌다.

'찾아가는 진로 취업 상담 서비스'는 진로 및 취업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원하는 학생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올해로 4년째 매 학기마다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서효상 기자 95hssang@hufs.ac.kr

한국방송학회 2017 가을철정기학술대회 개최

▲방송학회 시상식 현장

지난 11일 우리학교에서 제29대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가을철 학술대회는 '방송의 공적 책무: 진단과 모색'을 주제로 오전 1부와 오후 1,2,3부 그리고 한국방송학회 정기 총회로 구성됐다. 이번 한국방송학회 정기 총회에서는 △제29대 한국방송학회 결산 보고△제30대 회장 취임식△제30대 집행이사 승인 및 감사 선출△제31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 결과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우리학교 김영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학회장으로 취임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방송포럼 취임식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오전 1부는 '빅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최창원 박사(이노션 데이터애널리틱스팀 팀장)가 빅데이터 통찰을 통한 현대 미디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설명했다.

한편 오후 1,2,3 부는 약 80분 동안 진행됐는데 오후 1부에서 6명의 교수들이 방송의 공적 책무와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오후 2,3부는 방송의 공적 책무에 관한 연구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김민정 기자 95ellen3147@hufs.ac.kr

지식출판원 '릴레이 독서 캠페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추천 도서 기증해

우리학교 지식출판원이 지난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클럽 라운지에 추천 도서 30권을 비치했다. 추천도서에는 〈문학스캔들; 우리 시대 최고 문호들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저자 장은수 외)〉,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햄릿 제1사절판(박우수 옮김)〉 등 주목받는 신간을 비롯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인문학 도서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리학교 지식출판원은 이번해 상반기부터 외부 복합 문화 공간에 추천 도서를 지원하며 독서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7, 8월에는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서가식당〉과 '휴가지에선 휴대폰말고 책'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며 롤링힐스 호텔 로비 라운지에 여행 및 문학 도서 20권을 비치하기도 했다.

가정준 지식출판원 원장은 우리나라 독서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독서문화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다양한 교내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95ellen3147@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인과 함께하는 김장하는 날' 진행
"저소득층을 위한 뜻 깊은 김장"

▲'김장하는 날' 행사가 진행 중인 모습

지난 8일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학사운영팀과 삼성웰스토리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하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는 외국인 44명과 기숙사운영팀원 및 교육지원팀원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총 20박스(박스당 10kg)의 김치를 담았고 추후 모현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한 외국인 44명 중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도 매우 좋았다.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제공된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총 5개의 항목 모두에서 5점 중 4.9점 이상을 받아 성공적인 행사임을 증명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www.hufs.ac.kr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주간.야간.주말)
2018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안내
■입학문의: 경영대학원 주간, 주말 사무팀 02)2173-2399
야간 사무팀 02)2173-2408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 전형 일정(일반전형)

구 분	일 시 / 기 간	장 소	비 고
·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17. 11. 13(월) 09:00 ~ 12. 04(월)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17. 11. 13(월) 09:00 ~ 12. 04(월) 22:00	경영대학원 사무팀 (사이버관 502호)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면접 전형	**2017. 12. 09(토) 10:00**	사이버관	
· 합격자 발표	2017. 12. 15(금) 14:00	학교 홈페이지 www.hufs.ac.kr	
· 합격자 등록	2017. 12. 18(월) ~ 12. 27(수)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구 분	모집학과	전 공	모집인원
경영학석사 (MBA)	주간 MBA과정	· 경영학과	재무/회계	○○○명
			인사/조직	
			국제경영	
			경영정보	
			마케팅	
	야간 MBA과정	· 경영학과	경영	
		· 경영.금융학과 (온라인 수업)	경영	
			금융	
	주말 MBA과정	·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3. 지원 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KLPT)3급 이상 소지자.
단,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 대학의 전공 학과와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할 수 있음.

4. 전형 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5. 제출 서류
가. 입학 지원서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본 대학원 소정 서식) 1부.
사진(3x4cm)부착, 수험표는 본인 보관하여 면접당일 지참.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100분율 성적환산 표기) 1부.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의 한글 공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중국대학 출신자는,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중국대사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므로 공자아카데미를 통해 위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계획서 1부
라. 기타서류(해당자 제출)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성적표, 추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보낼 곳: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사무팀 사이버관 502호

6. 특 전
가. 외대동문(사이버외대 포함), 군인, 군무원, 군인공제회 직원, 공무원, 언론사 간부, 각 급 학교 교직원에게 입학시 1회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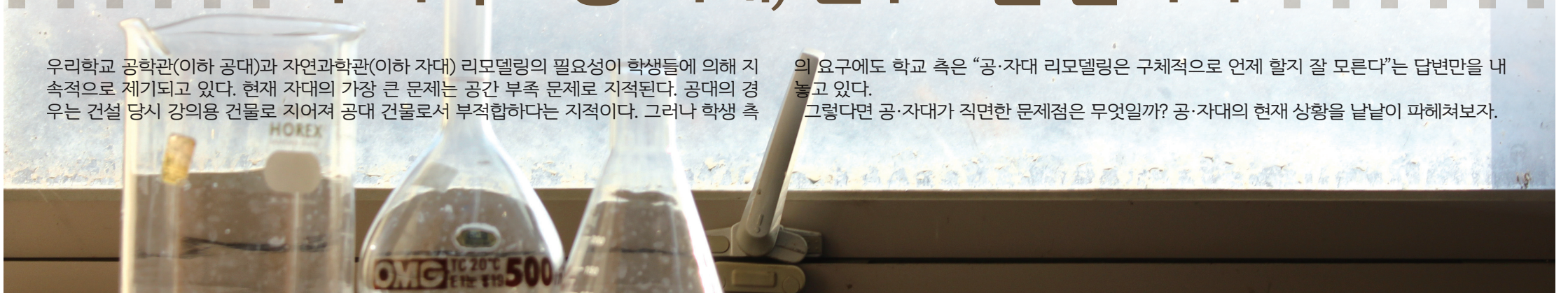
7. 기 타
가. 전형료 : 85,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5,000원)포함]
나.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17: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입학원서에 본인 날인(또는 서명)함.
수험표는 본인 보관, 면접 당일 지참. 지원서, 제출서류 첨부 제출 또는 우송)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270 Imum-dong, Dongdaemun-gu 130-791 Seoul, Korea
Tel : 주간, 주말 (02)2173-2399
야간 (02)2173-2408,2409
Fax: 02)2173-3389
website : biz.hufs..ac.kr

우리학교 공·자대, 현주소를 말하다

우리학교 공학관(이하 공대)과 자연과학관(이하 자대)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 부족 문제로 지적된다. 공대의 경우는 건설 당시 강의용 건물로 지어져 공대 건물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학생 측의 요구에도 학교 측은 "공·자대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잘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대가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공·자대의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공간문제

공대는 학생들이 이용할 실습실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졸업 과제를 할 때도 실습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에 공대 컴퓨터 · 전자시스템공학부 교수 A씨는 "몇몇 공대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캡스톤 설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습실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우리학교 공대는 졸업 과제를 진행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스스로 졸업 과제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실습실이 있다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기술을 한 단계 발달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조차 없으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대 내의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험기구를 보관할 공간마저 부족한 자대는 이러한 기구들을 복도에 배치해두고 있다. 이에 환경학과 교수 B씨는 "실험도구 및 샘플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경우에도 복도에 배치돼있다"며 "샘플이 인간에게 유해한 것일 때는 자물쇠로 잠그고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따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반인이 실험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 도난의 위험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또, B씨는 "실험실 공간이 협소해 분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실이 여전히 좁다"며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화학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 공 · 자대의 경우 어떨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봤다. 먼저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관의 각 층별 복도를 살펴봤다. 하지만 실험도구 및 이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복도에 배치된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사진 참조). 이후 둘러본 다른 건물들도 생명과학대학관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경희대 학생 C씨는 "복도에 실험기구를 배치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자연과학관 복도

▲경희대 국제캠퍼스 생명과학 대학관 복도

▲자연과학관 복도 끝

◆실험 및 실습 도구의 실태

먼저 공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 실습을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김(공과 · 정보통신 17)씨는 "학과 특성상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성능이 좋은 컴퓨터 대수는 매우 적어 어쩔 수 없이 성능이 좋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실습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기구의 수가 적고 상태도 좋지 않아 실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공과 · 전자공학 16)씨는 "실험할 때 빵판(bread board)을 사용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라며 "실험도구가 적어 여러 명의 학생이 모여 하나의 도구로 실험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자대의 경우 학생들은 부실한 실험도구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박(자연 · 화학 16)씨는 "저울이나 핫플레이트 등 기초적인 장비마저 많이 고장나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른 실험기구도 인원수에 비해 매우 적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자연 · 전자물리 17)씨는 "실험기구들이 대체로 다 오래됐다"며 "실험 중에 불량인 실험기구 때문에 다시 기구를 교체하고 실험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난방문제

매해 겨울이면 우리학교 공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공대의 난방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공과 · 정보통신 17)씨는 "강의실 내 라디에이터가 노후화돼 제대로 된 난방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라디에이터가 작동할 때 나는 소음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공대 교수 D씨는 "공대의 경우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는데 라디에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너무 춥다"며 "학생들과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기엔 힘든 환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밤에 난방도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개인 난방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자연과학관 실험실

◆해결책은?

공자대 리모델링은 매 정기총회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을 만큼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자대 리모델링을 언제 할지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공과 · 전자공학 13)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와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에 학교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소통하며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학교 측의 관심과 학교 학생 간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A씨는 "공대 건물은 ㅁ자 모양으로 중앙이 뚫려 있는 형태인데 이 공간은 무려 200평에 이른다"며 "공대건물이 5층인 것을 계산하면 총 1000평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씨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자대 내 몇몇 학과들을 이전시키면 된다"며 "공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기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리모델링 사업 결정으로부터 실제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공자대 건물의 신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실험에 직접 쓰이는 실험도구의 개선이나 실습에 이용되는 컴퓨터의 성능향상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박씨는 "전공수업에서 실험을 할 때 필수인 다수의 비커와 실린더 등에 결정이 그대로 붙어있거나 표면이 상당히 오염돼있다"며 "시설이 안 좋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도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학교는 14년도 본-분교 관계였던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통합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하나가 된 우리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대는 언어'라는 테두리를 넘어 '과학' 분야까지 외대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 · 자대의 건설적인 발전은 필수적이다. 공 · 자대의 현 학생들은 학교의 미흡한 시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마저 만족하지 않는 시설 및 도구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어떻게 공 · 자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학생 측과 학교 측 모두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캡스톤(capstone): 두 명 이상의 수강생이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은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등 전자공학 관련 팀 프로젝트이다.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

▲자대

▲공대

▲200평에 달하는 공대 빈 공간. 이 공간을 5층까지 활용할 경우 1000평의 여유공간이 생긴다.

코딩의 세계

다음 해부터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의 소프트웨어(SW)교육이 의무화된다. 이후 SW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34시간 이상, 초등학생은 17시간 이상 SW교육을 받게 된다. SW교육의 주요 수업 내용은 코딩으로 초·중생의 코딩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대학생의 코딩교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학교도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융복합소프트웨어 이중전공을 개설해 SW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코딩이란 무엇이며, 인문계 학생들은 코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SW교육 의무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 · 이과의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중학생은 정보, 초등학생은 실과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됐다. 정보 과목은 프로그래밍 개발과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고 실과과목은 프로그래밍 체험과 문제해결과정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한다. 교육부에서 발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를 따르면 "과학기술 소양 함양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반영됐다"면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의 대단원으로 구성해 놀이처럼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SW교육을 필수 정규 교육과정으로 택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컴퓨팅(Computing)과목을 신설하고 초 · 중등학교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시간 코딩을 배우자는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 캠페인을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 핀란드와 프랑스 등도 SW교육을 필수화하고 있다. 박제윤 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SW교육은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훌륭한 도구다"라며 "SW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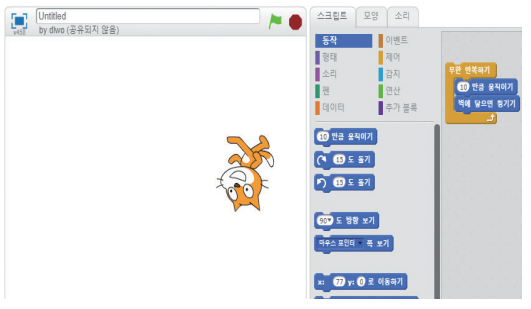
◆코딩이란 무엇인가

코딩은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0과 1로만 이뤄진 컴퓨터 세계에서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언어로 C언어, 파이썬, 자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공계 대학생에게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하지만, 타 대학생에게 이는 다소 낯설다. 그러므로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전 먼저 코딩 개념과 친숙해 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2006년 개발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스크래치(Scratch)는 코딩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그 개념을 쉽게 알려준다. 스크래치를 이용한 코딩을 예로 들면, 고양이 캐릭터를 10만큼 움직이는 명령어가 있다고 하자. 이 명령어에 '무한 반복하기'를 추가하면 캐릭터가 10만큼 계속 움직인다. 10만큼 움직이기와 무한반복하기가 합쳐진 명령어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명령어를 추가하면 캐릭터는 벽에 닿을 때마다 방향을 바꿔 움직인다. 이와 같이 스크래치는 코딩을 블록놀이 하듯이 놀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스크래치는 간단한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잘 활용하면 알고리즘도 공부할 수 있고 간단한 게임까지 만들 수 있다. 알고리즘은 작동이 일어나는 단계를 의미하여 컴퓨터는 모든 동작을 알고리즘의 순서로 수행한다.

언플러그드 코딩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코딩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해진 개수의 명령어로 작동 순서를 계산해 나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로봇이라 가정해 정해진 위치로 가도록 한다. 이때, '왼쪽으로 가' 명령어만 있다면 그 로봇은 원하는 위치로 가지 못한다.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등 적절한 명령어로 수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코딩은 문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끈기가 필요한 학습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 학습과는 다른 문제해결능력이 생긴다.

본격적으로 코딩에 흥미가 생기면 심화된 코딩을 공부한다. C언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부한다.



▲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Scratch) 실행화면

◆대학생들의 코딩교육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과의 명칭을 바꿔 이공계와 통폐합을 하거나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15년부터 융복합소프트웨어 전공을 개설해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인문대학 언어인지과학과에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여전히 코딩을 이공계의 전유물로 생각해 겁을 먹는 다. 이(인문 · 언어인지 16)씨는 "전공수업으로 코딩을 처음 접해봤다"면서 "이해하려 했지만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한 채 학기가 지나갔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는 SW교육이 강조되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미래에는 많은 직업이 컴퓨터의 영향을 받아 코딩 능력이 필수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인문학적 학문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윌리엄 애덤스 미국 인문학기금 이사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즉, 코딩실력이 주가 아닌 코딩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돼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코딩교육을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융합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준철(동양어 · 중국어 12) IT학회 Add:ICT 학회장은 "코딩을 배워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로직을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코딩이나 우다시티(udacity) 등 코딩을 쉽게 알려주는 무료 사이트들을 활용해 코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권 기자 94dlwo@hufs.ac.kr

중앙밴드동아리 F.A.내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차 피해까지 발생돼

◆사건 경위

지난 8월 15일 우리학교 중앙밴드동아리 F.A.에서 한 남성부원이 여성부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 박씨, 다른 동아리 부원 B, C와 함께 동아리 부원 B의 방에서 생일파티를 명목으로 술을 먹었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박씨가 가슴 등 신체 일부분을 몇 차례 만진 것을 느꼈지만 놀라 반응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된 후 A씨는 "어제 너무 잘 잤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박씨에게 "동아리를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A씨는 동아리 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동아리를 탈퇴했다. 박씨는 이 사건에 대해 묻는 말에 "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동아리를 나간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발생된 2차 피해

당초 A씨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무슨 짓을 어느 정도로 가해했는지", "왜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피해자는 이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는지"와 같은 수많은 왜곡된 시선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개인적으로 박씨에게 동아리 탈퇴를 요구한 후 당시 회장이었던 하성봉(서양어 · 스페인어 13)씨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하 회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했다.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만류하지 말 것

2. 가해자의 동아리 탈퇴 이유에 관해서는 가해자 둘러댄 변명(개인적인 사정)대로 알리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하지 말 것.

하지만 하씨은 A씨의 이러한 부탁을 무시한 채 다른 부원들에게 이를 발설했다. 이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왜곡돼 동아리 내에 퍼졌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씨에게 다시 연락해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하씨는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확약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한 차례 더 하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하씨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오히려 하씨는 지난 9월 29일 A씨와의 대면에서 "두 명을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았다", "세 명을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았다" 등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거짓말을 덧붙이는 등 피해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하씨의 사퇴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 차라리 모두가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명목으로 하씨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씨는 A씨에게 "자신이 사퇴하면 일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 차례 하씨에게 사퇴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씨는 약 한 달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연락이 두절된 한 달 동안 A씨가 하씨에게 부당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아리 내에 퍼져있었다.

한 달 후 하씨는 A씨의 설득과 회유 끝에 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에게 "나 때릴래? 여기선 말고 밖에서"와 같은 농담을 던지고 "내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동아리 부원 모두 이 사건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A씨가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퇴할 당시 처음 내놓은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동아리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는 그 사건의 피해를 받은 동아리 부원 의 의사에 반대로 몇몇 다른 부원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다른 동아리 부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은 동아리 부원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불찰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또한 더 이상 그 사건 혹은 피해를 받은 부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과문에는 정확한 사건 정황과 반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후 상황

현재 하씨는 F.A. 회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구성원으로서 동아리에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씨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사건이 2차 피해를 간과해 일어난 일이다"며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해 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더 이상 제가 피해를 준 학우에 대해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대자보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동아리원들 모두가 한 번씩 신중히 재고해줬으면 한다"며 현재 심정을 전했다. 또한 "단순히 하씨의 성추행 사건 발설뿐만 아니라 회피 및 잠적, 동아리원들의 무관심과 방관 등 모든 것이 2차 가해"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지구촌을 읽다

프랑스문학

김모세 교수
프랑스학과

역사의 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치열했던 20세기가 그 종반에 접어들 무렵, '포스트모더니즘' 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흐름 속에서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던 그 무렵, 문학의 세계에서도 이른바 '해체' 와 관련한 중요한 화두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프랑스 발 문학 해체의 담론이라고나 할까? 미셸 푸코가 선언한 '주체의 죽음' 의 문학적 버전이라고 할까?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였던 롤랑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 을 선포했다. 그의 선언은 정말이지 '감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문학의 주인은 '작가' 이지 않았던가? 작가가 없는 문학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던가? 작품의 '창작자' 인 작가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문학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가 사라진 작품은 더 이상 '작품' 이 아니라 여러 인용들의 모자이크로 구성된 하나의 '직조물' , 즉 '텍스트' 에 불과하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직조물인 텍스트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텍스트는 오로지 '독자' 에게 맡겨질 뿐이다. 독자는 더 이상 텍스트에서 '해석의 정답' 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들 앞에 주어진 텍스트는 단지 '유희' 의 장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도 어느덧 탈구축의 시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작가' 는 정말로 '죽었는가?' 오늘 우리가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전부 '텍스트' 들일 뿐인가?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 사실과 마주 대하게 된다. '저자의 죽음' 을 선포했던 롤랑 바르트의 저서들이 엄청난 '저작권' 을 뽐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저서 중 한 권을 번역이라도 하려 치면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저자의 죽음' 이 역설된 '텍스트' 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바르트의 작품' 으로 규정돼 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 본다. '저자' 는 과연 죽었는가?

저자와 독자의 문제, 나아가 문학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르트나 푸코보다 한 세대 앞선 작가들이었던 프랑수아 모리악과 장 폴 사르트르의 문학 논쟁이 그것이다. 아니, 논쟁이라기보다는 기성 작가 모리악에 대한 젊은 사르트르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1939년 2월 〈새로운 문학 평론(Nouvelle Revue Française)〉지에 실린 "프랑수아 모리악 씨와 자유" 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 시작됐다.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었던 장 폴 사르트르라는 필자가 기고한 이 글은 당시 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르트르의 공격 목표는 명확하다. 모리악이 언급했던 적이 있는 "신을 닮은 존재로서의 작가" 의 위상이다. 마치 신에 비견될 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작가의 존재가 목표이다.

사르트르는 이처럼 강력한 '작가' 의 존재가 유지되는 한 작품의 진정한 '자유' 는 없다고 보았다. 그가 볼 때 모리악은 소설의 인물들을 통제하고, 마치 자동인형처럼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르트르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로, 소설의 인물들은 오직 자유로울 때에만, 그들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할 때에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물들은 그들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소설가는 인물들의 증인이나 공모자 중 하나만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소설가는 작품의 바깥에 있던지, 작품 안에 있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일갈한다. "모리악 씨는 언젠가 소설가와 인물의 관계란 신과 피조물의 관계와 같다고 쓴 적이 있다. (...) 모리악 씨는 창조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사용해 자기의 피조물들을 사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모리악의 잘못은 자기 인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사르트르는 이 기고문을 이렇게 결론짓는다. "모리악 씨는 신과 같은 전지전능함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 편의 소설이란 한 명의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모든 외관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신의 관점에서 소설이나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외관을 먹고살기 때문이다. 신은 예술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리악 씨도 예술가가 아니다."

가혹한 판결이었다. 사르트르다운 자신감이라고 할까? 사르트르의 논점은 단 한 가지 개념에 집중돼 있다. 바로 '자유' 라는 개념이다. "당신의 작중 인물들이 살아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자유롭도록 하라." 사르트르의 생각에 예술작품은 창조의 산물이 아니다. 작중인물을 대하는 소설가의 입장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의 입장에 불과하다. 소설가는 인물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된다. 소설가는 기껏해야 단 한 명의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단번에 인물들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는" 모리악의 기법을 사르트르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에는 사르트르의 철학적 입장이 반영돼 있다. 사르트르는 작가이기 이전에 철학자로, 정확히 말해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그는 "실존주의의 교황" 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의 철학은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이 원칙이 정립되기 위해, 즉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기 위해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사르트르의 입장에서는 소설의 '실존' 보다 작가가 선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였던 것이다.

반대로, 모리악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모리악은 사르트르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특징을 지닌 작가였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창했던 사르트르와는 달리 모리악은 종교적 삶에 충실한 가톨릭 소설가였으며, 한 때 공산주의적 성향까지도 내비쳤던 사르트르와는 달리 드골주의자이자 우파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 그의 입장은 '작가' 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모리악에게 있어서 소설의 본질적인 특징은 삶을 '부여받은'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중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은 오로지 자유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처럼 '부여받은' 존재들의 모습이야말로, 실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모리악의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부여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탄생의 순간부터가 철저히 수동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삶 아닌가?) 따라서 〈구토〉의 작가와는 달리 모리악이 보기에 "스스로 소설가라고 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을 부여할 줄 알아야 하며, 살아 있는 존재들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모리악에게 있어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실존의 조건 속에 붙잡혀 있는 인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1946년에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모리악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이 위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품의 운명을 떠맡아야 합니다. 우리 외에 다른 누구도 작품을 꿰뚫어 볼 시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작가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작품에 대한 책임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작품이란 우리에게 속한 세계입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건 내리지 않건,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를 제시하건 한 인물의 운명을 상세히 그려내건, 그것은 철저히 작가에게 속한 자유이다. 다시 말해 모리악은 사르트르와 달리 인물들의 자유가 아니라, 작가의 자유를 더욱 중시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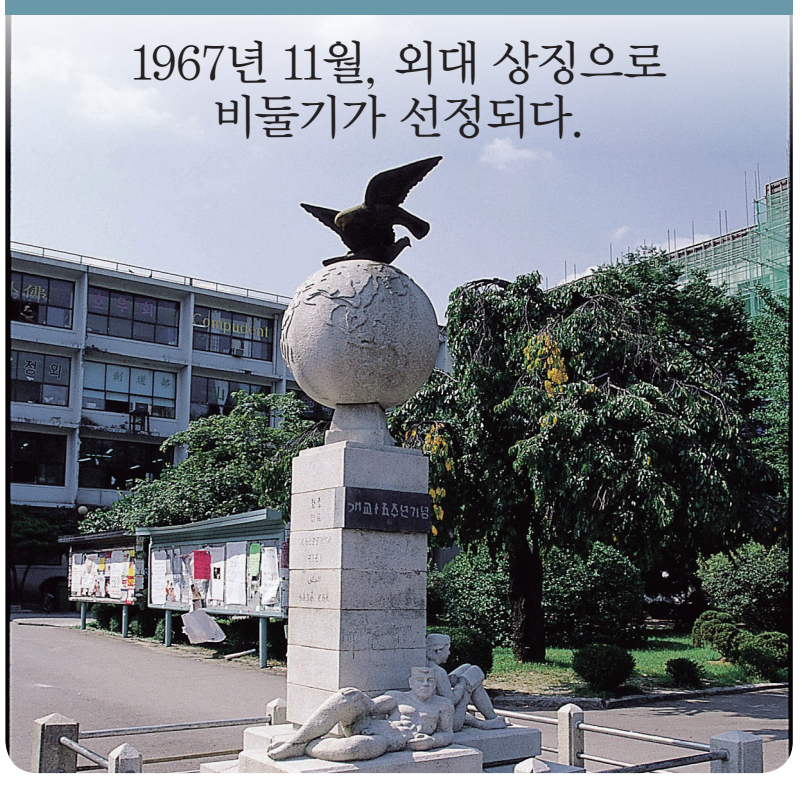
사르트르는 창조자로서의 작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물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모리악은 인물의 자유란 허구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것은 작가의 창작이라고 주장한다. 모리악이 문학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대변한다면, 사르트르는 '저자의 죽음' 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평적 관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제기해 보자. 이 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은 과연 없는가? 모리악과 사르트르의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즉 '작가' 가 '작품' 의 주인이기를 자처하는 문학과 '저자의 죽음' 을 선포하는 문학 사이의 접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접점' 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그 '접점' 은 바로 '독자' 이다. 사르트르와 모리악 공히 '독자' 의 존재를 문학의 필연적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 문학은 실존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 즉 신과 같은 존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즉자-대자' 존재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이다.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철저한 '자유' 의 존재인 인간은 그 자유의 무게 때문에 고통당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존의 선택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짐이 인간의 어깨를 짓누른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성을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사물과 같이 정립된 존재로서의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한다. '즉자-대자 존재' 라고 표현되는 존재의 방식, 사르트르의 표현에 따르면 신이 있다면 바로 그 신의 존재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주인' 이거나, 사물의 상태로 전락한 '노예'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즉자-대자' 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문학이다. 작가와 독자의 협력을 통해 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주체성을 투영해 작품을 집필하면, 독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투영해 그 작품을 읽고 객관화한다. 작품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작가의 주체성과 독자의 주체성이 만나는 순간,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순간, '즉자-대자' 존재가 구현되며, 사르트르는 이것을 '문학을 통한 구원' 이라고 칭한다.

모리악 역시 독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한다. 모리악이 보기에 문학은 작가와 인물, 그리고 독자가 동일한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 완성된다. 인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작가와 독자는 서로 만나고 소통한다. 작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 즉 독자를 찾는다.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자기와 유사한 누군가를 만나기 원한다. 결국 작가의 소원과 독자의 소원이 작품 속에서 연결돼 의미를 생산하고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다. "작가는 본질적으로 고독 속에 스스로를 함몰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들 가가자는 사막과도 같다. 작품은 항상 사막 속에서의 외침과 같다. 발에 편지를 달고 떠나는 비둘기 같은, 속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던져진 병과 같은 것이 작품이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누군가가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소설가라고 할 때 인물들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이해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자' 는 죽었는가? 죽었다면 누구에 의해서인가? '독자' 인가? 아니면 '비평가' 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독자들' 은 '작가' 를 죽인 적도 없고 죽일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작가가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좋고, 작품 뒤로 슬며시 자취를 감추어도 좋다. 현존하는 작가이건, 숨겨진 작가이건, 오늘도 우리 독자들은 작가의 영혼(모리악적 표현) 혹은 주체성(사르트르적 표현)과 만나고 대화하고 공감한다. 그것이 문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1967년 11월, 외대 상징으로 비둘기가 선정되다.



▲비둘기 상징탑(2000년대 초반)

사고

이문교정에 비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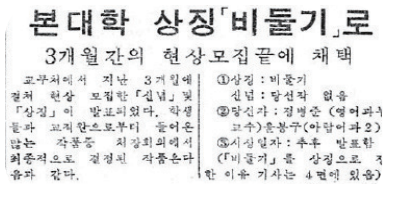
우리의 아담한 「캠퍼스」에 평화의 씨를 뿌려봅시다

본사에서는 대학 당국의후원으로 본대학 상징으로서 정된 「비둘기」 모으기운동을 전개, 전대학인의 적극참여와성원을 바라고 있읍니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비둘기는 귀소성을 갖고있어 자립성이 강할뿐더러 모성애 또한 지극한 귀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아진 비둘기는 「캠퍼스」의 평화스런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진리·평화·창조를 추구하는 외대인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도 큰도움이될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1. 접수방법 : 비둘기 한쌍을 1구좌로 하고 시가에 5백원을 현금으로 접수함.
2. 접 수 처 : 교학처 (6530 1~5) 및 본대학 출납부 (6791)
3. 마 감 일 : 1차마감을 금년 12월31일로 하고 그 때한 접수된 성금은 본대학사무처에서, 후에 비둘기집이 완성되는데로 일괄적으로 구입함.
4. 기 타 : 1차모집 250구좌 (500여) 로하여 목표에 추가되는 경우 사육관리비, 또는 2차 구입비로 이용함. 물론여러 자선적 행위를 본사나 본대학 출납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68년 10월 31일

▲비둘기 성금 모집 기사 (1968.10.31, 외대학보)



본대학 상징「비둘기」로

3개월간의 현상모집끝에 채택

교무처에서 지난 3개월에 걸쳐 현상 모집한「심벌」및「상징」이 발표되었다. 학생들과 교직원으로부터 들어온 많은 작품중 최정희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작품은다음과 같다.

①상징 : 비둘기
심벌 : 당선작 없음
②당선자 : 정병준 (영어과 교수)·홍봉구(아랍어과 2)
③시상일자 : 추후 발표함
(「비둘기」를 상징으로 채택한 이유 기사는 4면에 있음)

▲비둘기 상징 선정 기사(1967.11.21, 외대학보)

미네르바 여신과 지혜의 부엉이, 그리고 2016년 지식출판원에서 제작한 캐릭터 부엉이 'Boo' 등은 오늘날 우리 외대인에게 익숙한 대학의 상징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이들이 외대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각되기 전 캠퍼스 내에는 외대의 창학 이념을 담은 또 다른 상징이 존재했다.

1968년 10월 31일자 외대학보 1면에는 '이문 교정에 비둘기를' 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비둘기 모으기 운동은 비둘기 한 쌍을 1구좌로 하고 시가 500원을 현금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비둘기는 귀소성을 갖고 있어 자립성이 강할뿐더러 모성애 또한 지극한 귀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아진 비둘기는 캠퍼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진리·평화·창조를 추구하는 외대인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둘기가 외대의 상징으로 선정된 것은 이 모금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967년 11월이었다. 당시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던 행사에서 비둘기를 외대의 상징으로 제안해 1등으로 선정된 영어과 정병준 교수는 '비둘기는 인간과 가까이 살아왔고 귀소본능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따라서 외국어를 토대로 하는 학문을 연마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할 외대인의 상징으로 적합하다' 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외대학보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 비둘기 모금운동은 성황리에 종료돼 1969년 7월엔 비둘기 수백 마리를 사 모을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신관(現 법학관 위치에 있던 舊 학생회관) 옥상엔 비둘기 집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총동문회에선 개교 15주년 사업으로 비둘기 상징탑 건립을 추진해 12월 1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의 결실인 이 비둘기 상징탑은 하단부엔 진리와 창조를 추구하는 남녀 조각상이, 약 4m 높이인 탑 꼭대기엔 지구본과 그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구조로 제작돼 당시 학생회관 앞 광장에 설치됐다. 비록 이 상징물은 2000년대 초반 캠퍼스 내 신축 건물 조성으로 철거됐지만 '자유와 진리의 초석을 쌓아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외대인의 비상과 저력' 을 잘 표현한 인상적인 기념물로 지금까지 기억된다. 현재 남아 있는 비둘기 상징탑은 서울캠퍼스 본관 뒤편 광장에 위치해 있다.

2014년에 들어 외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UI(University Identity) 정립 사업을 시행했다. 현 트렌드에 맞게 외대를 대표하는 상징과 캐릭터도 미네르바 여신과 부엉이로 변화했다. 고대 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와 부엉이의 조합은 나아가 세계를 이끌 외대인의 굳은 의지와 냉철한 지혜를 나타낸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위기의 카탈루냐, 유럽 발 분리·독립 운동에 불붙이나

지난 10월 27일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스페인 상원의회는 카탈루냐에 대한 스페인 중앙 정부의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했다. 정부는 또한 헌법 155조를 의결해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자치 정부 수반과 각료도 해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유럽 각지서 지방자치정부의 분리 독립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 운동과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분리 독립 운동들을 아울러 살펴보자.

◆카탈루냐 지방 개관과 역사

카탈루냐는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 위치한 지방으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4개의 주가 속해있다. 표준어인 스페인어와 독자적 언어인 카탈루냐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인구는 약 750만 명으로 스페인 총 인구 4,760만 명의 약 16%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는 바스크 지방과 더불어 스페인 경제를 견인해 온 지역이다. 2010년대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며, 스페인의 17개 자치지방 중 그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카탈루냐 지방이 분리 독립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가 있었던 독립국가 카탈루냐 군주국은 1714년 바르셀로나 공방전에서 패배한 후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야 왕국에 편입돼 정치적 자유를 상실했다. 1932년 스페인 제2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자치 헌장이 채택되며 자치권을 회복하지만 4년 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Bahamonde)가 이끄는 반란군에게 장악된다. 이어 1939년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 정권이 제2공화국을 해체하고 자치 헌장을 폐지하자 다시 자치권을 상실한다. 1975년 프랑코 총통이 사망한 후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자 197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회복했다..

◆카탈루냐 독립 선언 원인

분리 독립의 이유는 크게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요인으로 양분된다. 카탈루냐는 마드리드 권역과 언어 · 문화 · 역사적 차이가 있다. 공용어로 사용되는 카탈루냐어는 9세기 경 바르셀로나 지방에서 쓰이던 속라틴어 방언에서 기원한 언어로 남프랑스의 오크어(프로방스어)의 영향을 받아 표준어인 스페인어보다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에 가깝다. 또한 1714년 카스티야 왕국에 편입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역사가 있어 문화적 이질성이 크다.

한편 분리 독립의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 국부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적다. 2010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 당시 스페인은 'PIGS(△포르투갈 Portugal △이탈리아 Italy△그리스 Greece△스페인 Spain을 일컫는 말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가리킴)' 의 4개국 중 하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국가 내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카탈루냐 자치주의 분담금을 늘려 다른 지방에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 분담금이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지원금보다 커지자 카탈루냐 지방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분담금과 분배금의 차이는 연평균 120억~160억 유로다.

◆카탈루냐 독립 선언과 국제사회 반응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자 자치정부는 구속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일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Carles Puigdemont)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달 10일 자치의회를 소집해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뒤, 독립 선언 요건이 충족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독립 선언은 유보하고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 같은 요청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난달 11일 독립 선언 여부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카탈루냐 측이 응답을 거부하자 헌법 제155조 발동을 공식화했다. 헌법 제155조는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자치정부가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1978년 제정된 이래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1일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최장 6개월간 직접 통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선언을 통해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했고 같은 날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를 해산했다. 해산된 의회는 다음달 21일 조기 선거를 통해 재구성 될 예정이며, 푸지데만 수반은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편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즉각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독일 정부는 "이런 종류의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테리사 메이(Theresa Mary May)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스페인 정부가 힘이 아닌 논쟁의 힘을 선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통합된 스페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스페인의 헌법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카탈루냐 독립의 전망

전문가들은 카탈루냐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한다. 먼저 카탈루냐 내부에서도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진행된 주민투표 상 독립 찬성표는 90%에 육박하나 이는 약 53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43%만이 투표한 결과다. 독립 선언이 있은 직후인 지난달 29일 바르셀로나에서는 경찰 추산 30만 명, 주최 측 추산 130만 명의 카탈루냐 주민이 모여 대규모 독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

카탈루냐 독립이 국내외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다. 스페인이 카탈루냐 독립을 승인하면 이를 선례로 각 국가 내부에서도 독립을 주장하는 자치정부들이 중앙정부에 독립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제2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라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영국의 메이 총리는 성명발표를 통해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이 위헌이라 밝히고 자치정부를 해산하는 등 독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분리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를 우려해 독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승인하면 스페인 내 17개 자치지방 또한 분리 독립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해당 지방정부의 독립 주민투표를 헌법 상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임호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방송에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세력을)무력으로 진압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다"며 "만약 무력충돌을 빚게 된다면 현재 우호적인 국제적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소요사태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큰 충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독립 관련 유럽의 분리 독립운동

분리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이나 제도에서 독립해 분리되거나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는 정치 운동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분리주의 운동이 이질적인 언어 · 문화 · 역사 · 인종 등을 이유로 독립을 요구했다면, 현재 분리주의 운동은 그 이유가 경제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같은 국가 내부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 존재하는데, 중앙정부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에게서 걷은 세금을 후자에게 지원하자 이를 불평등하다고 느낀 고소득 지역민이 분리 독립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이번 카탈루냐 독립 선언 사태 또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유럽의 민족주의를 촉발한다는 맥락을 보여준다.

영국은 작년 6월 국민투표 결과 탈퇴를 찬성하는 입장이 전체 투표 결과의 약 52%를 차지하자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탈퇴 원인으로는 난민 수용 문제와 함께 경제적 요인이 대두됐다. 2015년 영국이 유럽연합에 납부한 분담금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129억 파운드다. 탈퇴 찬성측은 이처럼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며 난민 수용을 병행하는 사이 국내 실업 문제가 악화됐고, 유럽 내 위상도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를 지지했다. 올해 3월 영국 메이 총리는 유럽 연합 탈퇴 서한을 유럽 연합 측에 공식 전달하며 탈퇴 협상을 시작했다. 현재 협상의 쟁점은 영국의 예산 분담금이다. 유럽 연합 측이 영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분담금과 유럽 연합 기관에서 일한 영국인 직원들의 연금 등의 명분으로 600억 유로를 요구하는 한편, 영국은 이러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리 독립 운동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서 발생하고 있다. 플랑드르 지방은 높은 지역총생산을 바탕으로 독립을 추진해왔다.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는 독립할 시 그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와 베네토 주는 이탈리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한다. 2개 주는 지난달 22일 자치권 확대를 안건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외국어교육과정 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8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2018.02.05.~2018.06.22.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2018.01.11.~2018.01.26.
야간과정	20주 야간과정	2월, 8월	2018.02.05.~2018.06.22.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2018.02.05.~2018.04.13.
주말과정	10주 주말과정	2월, 8월	2018.02.24.~2018.04.28.
	FLEX 대비과정	3월, 9월	2018.03.10.~2018.06.23.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2018.03.10.~2018.06.23.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flt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민(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3518	edulif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고등학생들의 침입 소동, 그 사건의 실태는?

지난달 31일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LD학부 면학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의 제보자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대학원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웠다", "이를 학교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 도중 학생 무리 중 한명이 이를 발견하고 LD학부 면학실까지 따라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제보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지난 2일,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로 LD학부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최근 학교 내에서 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3주가 흐른 지금, 당시의 상황과 학교의 대처, 후속 처리를 알아봤다.

◆우리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내실

본관에 위치한 안내실은 우리학교의 밤낮을 책임지는 경비원들이 모여 있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비원들은 3단봉과 호루라기를 소지한 상태로 현장에 나간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난동을 부릴 시 신고절차를 거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훈방조치를 취한다. 이후에 사건은 문서로 기록 · 정리해 공문화로 마무리 짓는다.

이번 고등학생 침입에 대해 구영수 보안근무 반장은 "외부인이 위협을 끼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해 1월 국제학사 기숙사에 노숙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노숙자가 벽보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려 많은 피해를 줬고 경찰과 함께 연행돼 재판까지 진행됐다"고 실제 처벌 사례를 언급했다. 구영수 반장은 "지난달 13일에도 고등학생들이 면학실 앞 농구장에서 흡연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비들이 바로 제지하고 훈방조치 했다"고 답했다. "이렇듯 안내실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해 사건 파악 후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후 행정총괄지원팀과 학생지원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비로서는 그들을 다시 못 오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생지원팀과 행정총괄지원팀의 대처 및 사후처리

학생지원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대학원 옆에서 고등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외대순찰대가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고등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우리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신원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이문 파출소장이 해당 학교에게 사건을 알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LD학부 학생들이 찍은 영상, 사진을 경찰 측에 제출해 해당 고등학교로 보냈고 이틀 후 해당 학생과 학생부장이 파출소에 방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답은 LD학부 학생들에게도 전달됐고 "앞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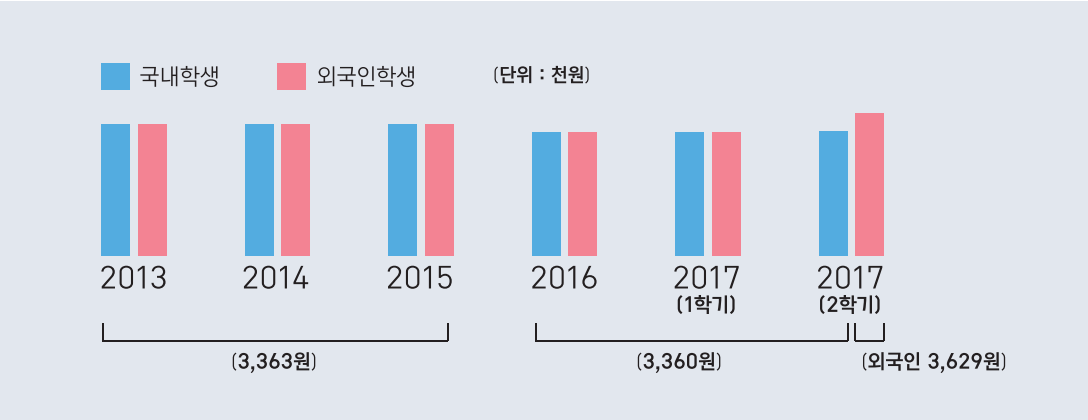
지난 14일 행정지원처장과 학생 대표들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고등학생들의 침입을 안내실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자 추경 또는 다음 해 예산 마련을 고려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는 순찰 범위의 확대가 계획됐다. 현재 우리 학교는 외대 지킴이와 순찰대가 오전 · 오후로 순찰을 돌고 있다. 사건 이후 학생지원팀은 동대문 파출소에 저녁에도 2~3차례의 순찰을 부탁한 상태이며 늦은 시간에는 경찰이 차에서 내려 직접 위험 지역들을 감시하도록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대학원 옆 출판실은 2층과 3층에 LD · LT학부의 면학실을 두고 있다. 면학실 잠금장치의 경우 열쇠로 열고 닫는 방식이며 평소에는 개방상태이다. CCTV도 설치돼있지 않아 보안에 다소 취약하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향해있는 외부 CCTV를 우범지역 방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LD · LT학부의 면학실 보안장치 설치 또한 행정총괄지원팀에서 검토 중이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경우 서울시와 함께 '담장 없는 학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며 "또한 도로변 평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다른 학교에 비해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학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글로벌'인가 '역차별'인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이번 학기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8% 올랐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내 학생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외국인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에 의문을 내비쳤다.



▲ 최근 5년간 외국인 및 국내 학생 등록금 (인문사회 계열 기준)

◆ 외국인 학생 등록금 상황 (5년 치)

위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국내 학생 등록금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의 국내 학생 등록금은 지난 학기와 동일한 반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만 8%(약 26만 원)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된 이유?

국제학생지원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유학생의 학습 및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이 결정됐고,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 인상분이 반영됐다"라고 답했다.

◆ 교육부의 정책 변화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 이유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정원 외 모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11조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과 '등록금 부담경감' 이 목적인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인상이 제한됐다. 이 조항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 지원에 많은 돈이 든다"며 외국인 학생만 등록금 자율 책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우리학교 외에 이번 학기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국민대가 있다. 국민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5% 올렸다. 고려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률을 15~18%로 계획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 외국인 학생들이 받는 복지

외국인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이 받는 복지 이외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무료 TOPIC 대비반 수강△GSA(Global Students Association–외국인 유학생회)의 학사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서비스△출입국 업무(비자 연장, 비자 연경, 외국인 시간제 취업 등)△문화체험 및 버디 프로그램△학부생 첫 학기 기숙사(글로비돔) 신청자 100% 입사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학생지원팀은 등록금 인상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학 수업 추가 개설△장학금 확대△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직원 추가 채용△외국인 유학생 전용 별도 기숙사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방침 변화로 많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티라타니 프리다폰 (Teeratanee Preedaporn 국제지역 · 한국학 15)는 "갑작스럽게 외국인 학생 등록금만 올라 당황스러웠다"며 "미리 공지를 했다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예고 없이 오른 등록금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한 만큼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에 더욱 힘 써야 한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평창 동계올림픽 G-80 돌파, 그 기대와 우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G-80을 돌파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다음 해 2월 9일부터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24일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31일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지금 성화는 '101일 · 2018㎞ 국토 대장정'에 나섰고, 다음 해인 2월 9일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멈춘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사상 최다인 95개국, 6,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큰 행사인 만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최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무슨 이유로 환호 받지 못하는 올림픽이 돼 가고 있는 것일까?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외면 받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평창이 과반수를 득표하며 선정됐다. 2010년과 2014년의 선정 실패를 겪은 후 유치권을 거머쥔 만큼, 초창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더반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그 흥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자국민들의 관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973명 중 '평창올림픽을 직접 관람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8.9%에 불과했다. 또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있다'는 대답도 40.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팔리지 않는 입장권, 누구를 위한 대회인가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림픽 입장권 판매량은 목표치(107만장)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이보다 더 심각한 4%대(목표치 22만장)에 머물러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흥행이 부진하자 정부 및 지자체, 교육 당국이 세금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이를 학생 · 공무원 · 소외계층에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교육 단체에서 15만 여장의 입장권 구매 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공무원 ·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기 관람을 위해 1만2000여장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식사 · 차량 등의 편의제공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존까지의 개최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경기 티켓에 까지 세금을 사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인기 종목으로 거론되는 프리스타일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은 입장권 판매가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8만원 이하 비인기 종목 입장권에 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에 단체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 경기에 세금을 통해 구입한 티켓 으로 빈 좌석을 채우는 것은 무관심에 대응하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보인다.

◆의전으로 지원한 자원봉사자가 교통안내 직무를?

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2만1,313명(올림픽 1만4,523명 · 패럴림픽 6,790명)이다. 이번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는 총 146개국에서 9만1,656명 이였으며, 경쟁률은 4대1이 넘었다. 면접까지 거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전국 권역별 기본교육을 두 차례 받았다. 이들은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서 행정 · 통역 · 안내 등의 직무를 맡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올림픽이 80일 가량 남은 이 시점까지도 직무배정과 숙소안내, 교통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분야를 따로 기제하고 지원했음에도 전혀 다른 직무에 배치된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 많은 봉사자들이 지원 분야와 관련 없이 교통안내(TRA)분야 배정을 받았다. 10시간 넘는 교육이수를 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나 아직까지 2000여명은 직무배정을 받지 못했다. 이달 14일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메일로 직무배정 안내를 전했다. 조직위는 테스트이벤트를 거치면서 위험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임무들이 사라지자 직무배정에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경기 직종 자원봉사자의 약 40%가 다른 직종으로 전환돼 직무를 제안받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저희 자원봉사부는 약 27%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는 부득이 직종을 전환하여 직무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직무배정을 받지 못하신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다음 주부터 직무를 제안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 거주지-근무지 간 '왕복교통비' 지원, 고속 ·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많은 봉사자들에게서 조직위의 늦은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단국가에서 올림픽? 꺼지지 않는 안보걱정

북한 핵실험과 전쟁위험 등 안보문제로 인해 국가들의 불참사태가 우려된다. 지난 9월 22일 카를 슈토스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장은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돼 선수들의 안전 보장이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선수단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참가를 보류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이달 14일 뉴욕 UN본부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북한의 피겨 페어 선수인 렴대옥-김주식 조는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지연맹 네벨혼 트로피에서 6위를 기록해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함에 따라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참여할 경우 평창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적자올림픽, 피할 수 없나

예산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예산 세출은 약 2조8000억 원이며, 세입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도로와 KTX 등의 인프라 투자까지 포함하면 올림픽 예산은 14조원 대까지 불어난다. 예매율 또한 저조한 가운데 투자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쌓인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올림픽이후 시설 활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 시설이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얀 코끼리는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애물단지'를 뜻하는 말이다. 일례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400m 트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983억원, 지방비 328억원 등 총 1,311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올림픽 이후 정상 운영할 경우 연간 32억54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대 수익은 연간 10억 원 선에 머물러 매년 20억 원 이상 적자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단법인 동사모조직위원회(이하 '동사모')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방안으로 아이스더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이스더비는 220m 트랙에서 롱 트랙인 스피드스케이팅(400m)과 쇼트트랙(110m) 선수들이 함께 레이싱 하는 통합적 프로 스케이팅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에선 "경빙장은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강릉하키센터도 마찬가지다. 106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했지만, 5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과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운영 대행을 포기한 상황이다. 강원도 측은 "올림픽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6개 경기장이 신설된 상태이지만 그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정선알파인스키 경기장 등 세 곳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측은 올림픽 이후 시설관리를 위해 연간 313억5100만 원의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한 반면 사후관리 방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연간 171억7800만 원에 불과해 매년 141억7300만 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즐기자,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려와 함께 기대또한 따르고 있다. 시설 면에선 경기장 12곳(설상 7개 · 빙상 5개)이 모두 완공됐고, IOC 심사 결과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경기장 배치가 촘촘하다는 것 또한 강점이다. 12곳 경기장의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밖에 되지 않고,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약 10~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도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역대 동계올림픽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부분 한 두달을 남겨 놓고 입장권 판매가 급증하는 게 일반적이라, 평창도 내년 1월 입장료 판매가 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 리치먼드는 시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후 활용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며 "평창 또한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향후 쓰임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조직위는 치안문제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IS등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 대회 기간 1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과 군 특수부대 요원을 평창에 배치해 철저한 경계 태세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여곡절 많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올림픽을 향해 걱정과 비난을 보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지 다 함께 응원하고 세계인의 축제를 즐길 시간이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e

PyeongChang 2018™

패션을 포착하다

애니멀 패션리더

기자는 더 이상 휴션피플을 섭외할 힘이 없다고 판단해 사람에서 동물로 눈을 돌려 동물 패션리더를 섭외했다.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편해지는 두 강아지가 기자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을 애니멀 패션리더로 선정했다.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까지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주인이 들고 있는 간식을 본 그들은 결국 인터뷰에 응해줬다.
(토이푸들 = 초코, 래브라도 리트리버 = 보리)

#1
기자(이하 기) : 올해로 둘 다 나이가 몇 살인지?
보리(이하 보), 초코(이하 초) : 멍멍멍멍멍멍~~!! (우린 친구고, 올해 두 살이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이 먹는 걸 체감하는 것 같다).
#2
기 : 보리야! 초코야! 사진 촬영한다고 어떤 옷 입은거야?
보 : 멍! 멍멍멍멍!! 멍멍멍멍머어어어엉!!! (이 옷으로 말하자면! 흰 스웨터인데, 겨울이 될 때 쯤 입어! 주인님이 봤을 때 이게 나랑 잘 어울리나 봐!!!)
초 : 멍멍멍! 멍멍!!! 멍멍멍멍멍♥(강아지 옷을 고를 땐 털 색깔과 비슷하게 입으면 이쁜 것 같아!! 나는 검은색과 붉은색 계열이 잘 어울려! 그래서 이 옷 두 개를 제일 좋아해♥)

#3
기 : 둘 중 누가 봐도 보리가 힘이 강할 것 같다! 둘의 관계는 어떤지?
초 : 멍멍멍멍~ 왈왈왈왈!! (에이~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요!!)
보 : ...멍멍.....멍멍멍 (첫 번째 사진 보면 알겠지만, 초코가 사진 찍는다고 웃으라면서 때리는 모습입니다...)

▲보리가 즐겨 입는다는 송아지 옷. 초코는 니트웨어를 즐긴다.

▲흰색 스웨터는 내 하나뿐인 친구죠.

◀ 초코의 잇 아이템은 블랙 숄이란다.

#4
기 : 각자 갖고 있는 목표가 있는가?
보, 초 : 멍멍멍!! 멍멍!! 멍멍멍멍멍!!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이제 간식 좀...)

사이좋게 간식을 나눠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지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현대기업의 키워드 브랜딩, 어떻게 진행될까?

브랜딩은 기업이 소비자의 머리에 고유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과정이고, 소비자가 직접 느끼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해 지속해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브랜딩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브랜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이라도 어떤 브랜드를 부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양상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브랜딩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PR·브랜딩 학과 김유경 교수에게 물었다.

김유경 광고 PR 브랜딩 학과 교수

Q1 : 브랜딩은 무엇인가?

브랜딩(Branding)을 알기 위해서는 브랜드(Brand)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브랜드라는 단어의 기원은 과거 신분제도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브랜드는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를 의미했다. 노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마크를 남기는 행위였던 것이다. 브랜드는 이렇게 물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초기의 인식이 발전해 현재 로고, 이름, 슬로건 등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됐다.

브랜딩은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인데, 가치를 높이려면 의미부여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지,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제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독특한 가치를 형성한다. 결국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유형의 물체에 담아내며 소비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브랜딩의 과정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강력한 이미지,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 호감을 살 수 있는 선호적 이미지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브랜딩이라 할 수 있다.

Q2 : 브랜딩은 왜 중요한가?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한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돋보이게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Identity)가 형성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결국 브랜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덴티티가 명확해도 판매되지 않는다면 브랜딩의 의미가 없다. 가령 A 브랜드는 혁신, B 브랜드는 명성 등 각각 다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의미와 소비자를 엮는 것이 브랜딩의 역할이다. 소비자가 브랜딩에 만족했다면 상품에 신뢰도와 충성도가 쌓인다. 브랜딩이 잘 됐다면 소비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기업의 상품을 믿고 구매하게 된다. 결국 브랜딩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 *"브랜드는 이름, 로고, 슬로건 등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 즉,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 *브랜딩은 이미지,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Q3 : 브랜딩의 잘 된 예와 안 된 예는 어떤 것이 있나?

브랜딩의 잘 된 예는 단언컨대 삼성(Samsung)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삼성은 브랜드 순위가 전 세계적으로 5, 6위를 다툴 정도로 유명하다. 즉, 이는 전 세계 어느 마트에 가더라도 삼성제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에서만 유명한 브랜드가 있겠지만, 삼성처럼 전 세계적으로 모두한테 인정받는 브랜드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은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잘 대응했고, 소비자한테 사랑받고 있다.

브랜딩이 잘된 시기만을 생각한다면 변화의 노력 없이 머물러있게 되고,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실패 예는 소니라고 할 수 있다. 소니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만큼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였다. 하지만 소니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기존의 최고였던 상품을 더욱 발전시키려고만 했다. 결국 안정성을 추구하던 이 과정이 소니의 매출 고공행진을 막았고, 다른 전자제품 기업에게 1등의 자리를 내줬다. 소니는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브랜드였고, 소비자의 인식에서 멀어졌다. 결국 발전의 노력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외면되는 것이다.

삼성과 소니는 같은 전자제품 기업이었지만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삼성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했고, 소니는 안주했다. 지금 소니는 첨단 가전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위치를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Q4 : 요즘 '국가브랜드'가 이슈다. 국가브랜드란 무엇인가?

국가브랜드는 앞서 설명한 기업의 브랜딩이 국가라는 큰 범주로 이동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상품이 생산되는 나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Made in China'와 'Made in USA'의 태그가 부착된 품질이 같은 두 상품이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소비자가 국가브랜드에 따라 상품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지를 알려준다. 국가브랜딩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과정이다. 국가브랜딩의 성공은 엄청난 '프리미엄(Premium)' 효과를 국가 전체에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여러 정부에 걸쳐 '국가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개별기업만으로 국가를 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체가 없는 국가브랜드는 단순 프로모션에 불과하다.

원산지, 관광지, 투자지, 투비즈니스, 거주, 등 모든 부문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국가브랜딩의 동력이 살아난다. 예컨대, 최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도시브랜드를 실체로 하는 협치형의 국가브랜드 미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브랜딩을 통해 전 세계에 새롭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 *기업은 브랜딩을 통해 결국 자사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18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8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17.10.13.(금) ~ 10.30.(월)	2017.11.17.(금) ~ 12.04.(월)
고사장 발표	11.08.(수) 15:00	12.13.(수) 15:00
면접전형	**11. 11(토) 09:30 예정**	**12. 16(토) 09:30 예정**
합격자 발표	11.23.(목) 15:00	12.2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3.(목) ~ 11.29.(수)	12.28.(목) ~ 2018.01.03.(수)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영어교수학습지도학과(ELT)
나.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ELT CD)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영어Writing 포함)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한국외대 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
마. TESOL연구과정 수료자 우대
바.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2 FAX. 02-2173-3358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나의 가갸거겨고교는 무슨 잠꼬대인가

만물은 노래하고 말한다
새는 새소리로 노래하고
바위는 침묵으로 말한다
나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나의 가갸거겨고교는 무슨 잠꼬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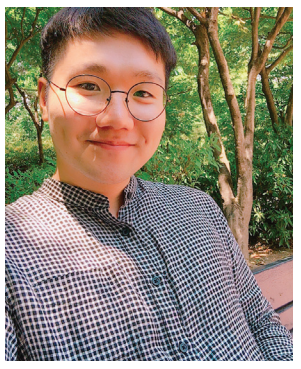
–고은 시집 [순간의 꽃] 중에서–

이 시는 필자가 외대학보 활동을 시작할 때 쯤 읽었던 시다. 읽으면 내가 뱉는 말과 적는 글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시다. 당시 이 시를 마음에 새기며 학보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내가 쓸 기사와 칼럼이 고은 시인의 표현처럼 헛된 잠꼬대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지는 못해도,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내 글이 적어도 의미 없는 잠꼬대로는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 종강을 바라보며 학기가 끝나간다. 학업과 학보사 활동을 병행한 한 학기를 돌아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성찰하고 고민하며 정성스레 기사를 써야하는 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피로에 짓눌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 학보 활동을 통해 이러쿵저러쿵 여러 얘기를 했다. 없는 지식과 짧은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정작 나부터 내가 쓴 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감정이 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뭐하나, 말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는 생각에 귀가 빨개지곤 했다.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질 낮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이르러 '기레기' 라는 말을 하곤 한다.팩트 체크를 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취재로 기사를 작성할 때 기자는 곧 기레기가 된다. 나는 여기에 '비판하고 주장하는 대로 기자 본인이 살지 않는 것' 도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하는 대로, 쓴 글대로 본인부터 살지 않는데 그것이 사회에 무슨 노래가 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기레기는 되지 말자고 했던 다짐이 바쁘다는 핑계로 무색해져 버렸음을 반성한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쓰여질 모든 글이 좋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의 반성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 다짐한다. 만물이 노래하듯, 나 또한 내 삶으로 노래하고 싶다.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바란다.



전환욱 기자

지진과 원전

[과학읽기, 세상읽기]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 부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국판 불의 고리' 로 불리는 영남지방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준다. 강진이 일어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 해일이 일 수도 있다. 그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은 원전이 무너져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수증기는 원자력발전소 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어떤 원자핵이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만나면 우라늄 중성자에 가벼운 원자핵 중성자가 흡수되고 가벼운 원자핵이 쪼개지는데 이를 핵분열이라 한다. 핵분열을 할 때 2~3개의 중성자가 나온다. 이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과 부딪히면 또 다른 핵분열이 일어난다. 이를 핵분열 연쇄반응이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연료는 막대모양의 봉으로 돼있어 연료봉이라 불린다. 연료봉을 사용한 뒤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우라늄, 플루토늄을 다시 뽑아낸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상온에 보관하면 핵붕괴를 일으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므로 끊임없이 냉각수로 냉각해줘야 한다.

지진이 발생해 원자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으면 방사성 폐기물이 공기 중으로 노출될 수 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겨 냉각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핵반응이 발생해 저장고가 폭발할 수도 있고 냉각수 자체가 유출될 수도 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냉각하던 장치가 정지돼 높은 열이 발생하고 핵 연료봉 전체가 녹았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는 방사능에 오염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다. 방사능이 피폭되면 인체는 면역력이 약해져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주변 인구밀집도와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 모두 세계 1위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 규모 6.5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가 돼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보다 0.7이 커지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 6호기 공사 재개를 확정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위험성만 빼면 생산단가가 낮고 만들어지는 전기량 또한 일정해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적절한 발전수단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발전소를 만든다면 예정된 재앙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과 같다.

이재권 기자 94dlwo@hufs.ac.kr

자존감과 작별하라

인문학칼럼 [일상을 스치는 인문학]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사고 방식의 특징 중 하나로 '초점주의' 가 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외에 자신을 둘러싼 다른 상황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을 '초점주의' 라고 한다. 예컨대, 연인과 연락 문제로 다투고 헤어진 사람은 이별의 원인이 '연락에 신경 쓰지 않은 것' 에 있다고 쉽게 결론지어 버릴 수가 있다.

최근 '자존감이라는 독' 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며 장, 단점을 제시한다. 특히 낮은 자존감의 단점이 두드러진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 죄책감, 좌절감을 느낀다. 또한 자기 효능감도 최근 경험에 따라 급변한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를 의미한다. 이런 경향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낮은 자존감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다. 자신이 항상 남들보다 부족하고 뒤처진 존재라 인식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고백건대, 낮은 자존감의 모든 특징을 필자가 갖고 있다. 필자는 자존감 문제만 해결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까?' 하는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며 살았다. 역설적이지만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졌고, 낮은 자존감에 강하게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겪게 됐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책의 작가는 필자처럼 낮은 자존감에 사로 잡혀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단언한다. '자존감과 작별하라.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목표 설정이다' 책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삶을 망치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책의 마지막에 작가는 다음을 강조한다. '삶에서 궁극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것은 자존감의 높낮이가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안정감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초점주의에 빠져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삶의 안정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고백건대, 필자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전환욱 기자 95hwanwook3132@hufs.ac.kr

떨어지는 낙엽처럼

박세원(이탈리아어과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13호는 알록달록한 단풍잎처럼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들로 구성됐다. 총장 선거, 동아리 소음 문제 등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도그 포비아와 에이즈와 같은 시의 적절한 사회적인 이슈까지 알차게 다룬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내용의 균형적 측면에서 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 관련 소송 문제, 김인경 선수 특혜 논란 등 기사가 글로벌 캠퍼스에 치중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LD학부 면학실 침입 등 외부인 교내 침입과 관련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이를 다루는 기사가 없었다는 점도 안타까웠다.

우선 이번 학보는 총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다. 총장 선거 방식에 관한 논의는 올 초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학보의 첫 면을 할애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좋았다. 특히 후보자별 공약을 대상별로 기호를 다르게 하여 한 눈에 공약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무게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Who's NEXT! 제 11대 총장〉 이라는 제목은 기존에 제시된 총장 선거 방식의 문제나 모의 투표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기에는 살짝 부적합해보였다. 또 후보자에 대한 소개나 공약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공약 분석이나 제시된 도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듯 보였다. 비록 모의 투표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면 보다 짜임새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학보는 이중 전공 신청 및 변경 기간에 맞춰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1학년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경영대의 수강 신청 문제와 어문대의 성적 평가방식 등 각 이중 전공자들이 겪는 고충이나 학생들의 전공 설명회에 대한 요구, 타 학교의 모범적 사례가 함께 언급됐다. 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보의 역할이 잘 드러났다. 다만 많은 학우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학과별 배정 기준이나 이중 전공생들의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작은 아쉬움이 남는다.

낙엽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캠퍼스에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바빴던 17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외대의 모든 학우들과 외대 학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심현정(국제지역 · 프랑스학과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호는 11대 총장선거, 글로벌캠퍼스 총학 비리, 외부적으로는 '도그포비아' 현상과 스타의 특례입학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기했다. 1면에서 내부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끌고, 바로 이어지는 기획기사로 자세한 내용들을 보충, 보완했다는 것이다. 특히 총장선거 기획기사의 경우 후보자들의 공약에 기호를, 공약빈도수와 공약대상자분포에는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읽기에 용이했다. 하지만 〈후보별 공약을 파헤쳐보자〉의 문단은 공약을 파헤친다기 보다는 도표를 풀어쓴 것에 불과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총학관련 기획기사에서는 1면에 실은 내용들을 다분히 보완하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현재 〈총학 홍보차장 댓글 논란〉 문단에서는 첫 번째 인용문에 단 한 번의 띄어쓰기가 없는 점이 읽는 이로 하여금 불편한 점이 될 수 있다. 이 문단의 마지막에는 〈"추후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라고 쓰는 등 기본적인 맞춤법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대나무 숲의 논란은 이 논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나무 숲이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침묵하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 내용 대신 확대운영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스타의 특례 관련 기사는 본교에 재학 중인 스포츠 스타의 특혜 목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다. 제목과 내용의 대비로 모순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목의 경우 이 기사 내용의 성향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연예인을 이용한 학교 홍보로 유명한 성신여대 입학 홍보처는...〉 이라는 내용에서는 자칫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모 대학 '으로 표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마지막 문단에서는 〈먹칠을 하는 주체는 스타가 아닌 스타가 되고 싶은 학교다〉라는 문구가 주제를 드러내고, 독자로서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임에 인상 깊었다.

'도그포비아' 현상을 다룬 기사에서는 '펫티켓' 에 대한 정보수집이 크게 부족해보였다. 최근 한류스타 최씨의 반려견 사고로 인해 '도그포비아' 현상이 확산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활발히 뤄지고 있다. 의사, 동물행동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은 입마개가 모든 반려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은 마치 잠재적인 폭력성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다뤄져 있다. 이는 펫티켓의 강조가 아닌, 독자들의 '도그포비아' 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꼴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 학보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이 요구된다.

항상 흥미롭고 좋은 콘텐츠를 이끌어내는 만큼 그에 따른 탄탄한 정보 수집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기하는 외대만의 학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철학이란 무엇인가?

▲ 철학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철학이란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지식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물음은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우선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철학은 물음을 던지는 가장 첫 번째 학문이자 그 물음이 던지는 파장의 크기와 질문의 깊이가 다른 여타 학문과 비교했을 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사에서 그런 강력한 물음의 선봉은 바로 '자연철학' 이다. 그들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알고자 하는' 지적능력 때문에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첫 물음을 던진 소크라테스보다 앞서 철학서에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자연철학자들이 탐구한 아르케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르케는 라틴어 principium에서 파생한 말로 시초, 최초의 시작을 뜻한다. 이들의 물음은 최초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세상에 대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대과학이 마주한 문제(물음)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철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초의 물음, 시초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묻는 '자연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아르케로 향하며 본질을 탐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 무엇이? 하는 물음은 인간정신의, 인간 활동의 원동력이자, 모든 학문의 시작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정리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학문의 발달이 있었고 학문 발달 밑에는 물음이 있었으며 그 물음은 철학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필자가 철학을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지식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비주류로서 위기를 맞고 있다.

▲철학이 태동한 고대부터 이성과 철학의 암흑기인 중세를 지나 인간 정신의 부활을 알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철학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과 함께 해왔다. 전대미문의 비약적인 생산력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를 발달시켰고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두고 즉, 자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세상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철학은 비주류에 속하며 비로소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필자는 묻는다. 정말 철학은 위기인가?

▲현재 주류로 취급되는 이공계는 여러 학문으로 분과되어 공부한다는 점은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양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회의 한 부분에서 한 가지의 나사밖에 돌리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한 지식인은 그러한 자본 앞에서 더욱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의 나사를 돌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외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철학은 항상 위기라는 단어와 늘 함께 했으며 지금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철학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보다 진보적인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대 [신춘문예]

#대상작

종: 종강하면 하고 싶은 게 있니?
강: 강……. 없어요. 종강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종강이란 꿈>, 서진주

#우수작

종: 종교개혁 500주년
강: 강동구 명성교회 세습 웬 말이냐

<종강과 종교개혁>, 보조개

#우수작

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홀로 걸었다.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어둠 뿐이었다.

간혹 창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코 열리지 않았다.
목이 말라 찾아간 물웅덩이는,
빛에 반사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러다 무언가에 쫓기며 뛰기 시작했다.
죽을만큼 숨이 차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먼 기억과도 같은 내 목소리의 존재를 잃어버렸을때,

작은 바람이 나의 귀에 속삭였다.
조금만, 힘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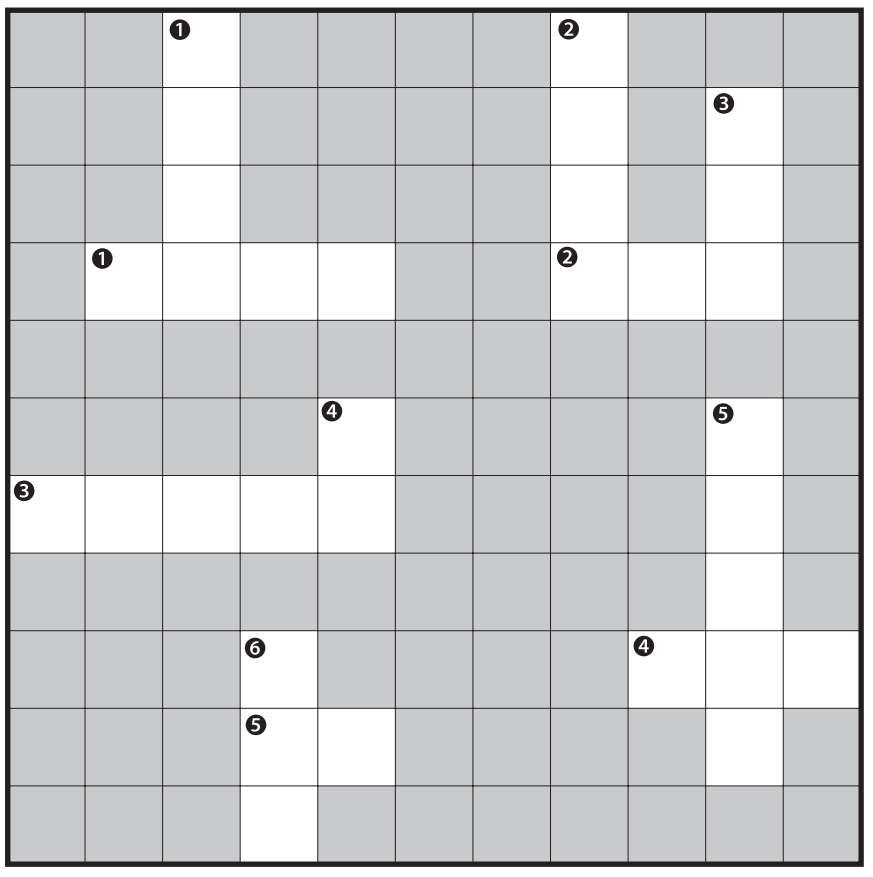
그 소리에 눈을 떠 바라보니,
작은 빛 한 줄기가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작지만, 선명한 빛.

그 순간, 나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작지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종강, 곧 다가올 끝을 향해>, 이은서

안녕하세요, <<외대신춘문예>>입니다. 2017년 **2학기 종강호인 1015호 신춘문예 주제**는 **'방학'**입니다! 방학에 대한 외대인 여러분의 설레는 마음을 간결한 시에 담아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대상작에 당선된 분께는 영화 티켓을, 우수작에 당선된 분께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우리학교 제11대 총장 후보에 대해 학생 ○○○○가 진행됐다. (1면 참조)
2.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 문체부 장관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8면 참조)
3. '○○○○○'는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애물단지'를 뜻하는 말이다. (8면 참조)
4. 지난 17일 진행된 우리학교 제 11대 총장 후보 선거 1차 투표에서 기호 6번 ○○○ 후보가 124표를 득표해 29%의 득표율로 득표 1위에 올랐다. (1면 참조)
5. 외대신춘문예 1014호의 주제는 '○○'이다. (11면 참조)

세로

1.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외에 자신을 둘러싼 다른 상황은 잊어 버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을 '○○○○'라고 한다. (10면 참조)
2.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 포항 부근에서 규모 5.4의 지 진이 발생했다. (10면 참조)
3. 지난 17일 진행된 우리학교 제 11대 총장 후보 선거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 ○○○ 후보가 13.8%로 득표 2위에 올랐다. (1면 참조)
4. 홉션피플로 선정된 애니멀 패션리더 중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이름은 ○○다. (8면 참조)
5. '글로벌'인가 '역차별'인가? 외국인 학생 ○○○○○. (7면 참조)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사 중 하나인 '한겨레' 신문사에서 과거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 편집인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다. (12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미래의 언론인, 9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나는 백만의 총검보다, 석장의 신문지를 더 두려워한다"
-나폴레옹-

- **모집대상** 양 캠퍼스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누구나
- **모집기간** 2017년 11월 1일~11월 27일
- **필기시험/면접일** 2017년 11월 28-29일
- **합격자 공지** 11월 27일(필기시험/면접 후 개별 연락)
- **활동 혜택** 언론 장학금 혜택

▶지원서 수령 및 문의
이메일 93heedying@hufs.ac.kr
김희지 편집장 010-6566-2206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김희지 010-6566-2206, 93heedying@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종덕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편집장 김희지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김종구 편집인
‘다시 태어나도 기자의 길을 가겠다’

우리 학교에는 많은 학우들이 언론인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학교는 많은 언론인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사 중 하나인 ‘한겨레’ 신문사에서 과거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김종구 편집인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인물면에서는 지난했던 현대사를 몸소 체험한 그의 기자 인생 얘기, 최근 불거졌던 ‘한경오 사태’에 대한 그의 생각 그리고 언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7학번
* 現 한겨레 신문 편집인/전무이사
* 前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
* 前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前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
* 前 한겨레 신문 민권사회2부 부장
* 前 한겨레21 편집장
* 前 연합뉴스 기자
* 前 서울 신문 기자

Q1.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사건이 많던 시절 학교에 재학중이었다. 당시 학교 생활은 어땠나?

1977년 박정희 정권 유신 체제 말기에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당시 여느 대학생처럼 민주주의, 인권, 암울한 사회에 대한 고뇌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던 학생이었다.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이다보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았다. 이후 12.12 사태 발발과 신군부 등장을 계기로 학내 데모가 폭발했다. 당시 나는 데모에 참여하던 학생 중의 한 명이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학생 시위를 막기 위해 휴교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나는 4학년 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Q2. 언론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실 오랫동안 기자를 꿈꾸며 큰 포부를 갖고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삶이란 그런 것 같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선택한 길이 때론 자신의 결정적인 인생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군 전역을 앞뒀을 무렵 진로를 놓고 공부를 더 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할 지 고민했다. 당시 친한 친구들을 보니 대부분 신문사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지원을 권했다. 하지만 기자는 글을 정말 잘 써야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난 당시 글쓰기, 시사 공부 등 신문사 공부를 한 적도 없었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신문사 입사 시험을 권하자 마지못해 원서를 접수했고, 전역 바로 다음 날 입사 시험을 쳤다. 시험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이를 계기로 ‘신문사 입사가 해볼 만하겠다’ 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서울 신문에 합격했다. 그런데 수습 기간에 그만두고 몇 달을 쉬다가 다시 연합뉴스에 시험을 쳤고, 합격해 기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합통신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1987년 한겨레 창간 소식이 들려왔다. 한겨레 신문사가 자리 잡으면서 경력 기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띄웠다. 당시 나는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사를 쓰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이 마음이 이직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직에 성공한 뒤, 사회부 기자로 한겨레 신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때 내가 갖고 있던 사회 이면을 찾아내고, 불의를 뿌리 뽑고,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 신념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했지만 내 이상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시 기자를 선택할 것이다.

Q3. 1985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

우선 격동의 현대사 속 많은 사건들을 기자로서 몸소 경험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다. 먼저 19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문’ 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당시 윤석양 이병을 내 자취방에 숨겨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건을 직접 취재했다.

또한 1999년 당시 내가 한겨레21에서 일할 때, *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을 취재 · 보도한 것도 의미가 큰 사건이다. 이 기사를 읽고 분노한 전우회 군인들이 한겨레 신문사로 몰려와서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스스로의 치부도 용감히 드러낼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보람차다고 느끼는 사건은 ‘양심적 병역 거부’ 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한겨레21에서 소수자의 얘기를 다루는 ‘마이너리티’ 라는 문패(코너)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 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실었다. 발간 이후 기사가 실린 해당 호를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대량으로 사서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변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것을 계기로 ‘대체 복무 제도’ 를 특집으로 다뤄 시리즈, 르포 기사를 실었다.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공공 의제’ 로 떠오르게 됐다. 더 나아가 정책 상정까지 올라가면서 ‘정책 의제’ 가 된 사건이었다. 이는 언론이 가진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를 경험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미디어 의제가 정책 의제까지 발전하게 된 일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주석
*1990년 10월 국군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벌인 각계 주요인사 및 민간인 정치사찰 내용을 담은 사찰대상명부를 빼내 탈출해 사회에 폭로한 사건. 이후 보안사는 ‘기무사’ 로 이름을 바꿨고 윤석양은 1995년 ‘올해의 인권상’ 을 수상했다.
*1999년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을 보도했다.

Q4. 세월호 사건, 240번 버스사건 등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언론의 지나친 속보 경쟁’ 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언론 풍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적에 동의한다. 지나친 속보 경쟁이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속보 경쟁은 신문 탄생 이후부터 계속된 부분이다. 속보가 언론 고유의 속성에 달아있기 때문이다. ‘어떡하면 좀 더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가’ 가 언론의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특히 종이신문은 속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순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보도와 냉철한 분석을 담은 기사를 쓰는 것이 종이신문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신력 있는 언론이 되는 것은 신속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Q5. 요즘 기성 신문을 더 이상 열독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언론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야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부분에서는 기자보다 훨씬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진 독자도 많아져 기사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한다. 기자는 오류를 인정하고 해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 비판 받는 기사에 대한 오류 시인, 충분한 기사 배경 설명 등 독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문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진보 언론인 한겨레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최근 ‘참여소통에디터’ 를 신설해 독자와 더 활발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Q6.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경오 사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 쪽에서는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의 과한 충성이 문제다’, 다른 쪽에서는 ‘항상 대중을 가르치려고 드는 한경오 태도가 문제다’라고 주장한다. 한겨레 신문의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인으로서 한겨레에 대한 비판과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故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보 언론 한겨레마저 노 대통령에게 등 돌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예전처럼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발언 중에 이해되는 대목도 있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 정권과 우리 신문사가 아무리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더라도 주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신문은 원칙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신문은 현실 타협적인 주장만 할 수는 없는 존재다.

대선 당시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여지 없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겨레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의 지향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 같

은 일들이 촉발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이 대중에게 와전됐다. 이러한 대중 정서가 형성된 가운데 이른바 ‘덤벼라 문빠’ 사태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더 사태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와 같이 합리적인 비판도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90%를 지지하고 있는데, 10%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호칭 논란이었다.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는 30년 전부터 대통령 영부인의 호칭을 ‘씨’ 라고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 호칭 논란이 있었을 때, 한겨레는 ‘씨’ 라는 호칭을 유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니 시대가 변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씨’ 라는 호칭이 상대방을 낮추는 의미로 변화됐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이르는 적절한 직함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겨레는 왜 가르치려 드냐’ 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일부 이해할 수 있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호칭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한겨레는 대통령 부인의 호칭을 ‘씨’ 대신 ‘여사’ 로 바꿨다. 또한 독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비판을 받으면 충실히 답변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Q7. 선배님 인생에서 앞으로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론인으로서 처음 가졌던 신념대로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훌륭한 언론인으로 남는 것이 꿈이다.

Q8. 언론인을 꿈꾸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아직도 기자가 인기가 있는 직업인가?(웃음) 예전에 비해 기자 생활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많이 느낀다. 특히 기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과거에는 기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컸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기자에게는 ‘자부심’ 이 유일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요즘은 기자의 자부심까지도 비난하는 분위기다. 물론 자부심을 겉으로 내세우며 인정받고자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기자가 가진 자부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흐름이 안타깝다는 의미다. 기자 지망생이라면 이런 사회 인식 변화를 충분히 감당할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한다.

방법적인 조언을 하자면, 우선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필수다. 좋은 글을 꾸준히 베껴 써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좋은 글을 모방하는 것이 좋은 글을 써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환욱 기자 95hwanwook3132@hufs.ac.kr